
' 20년 2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2020. 5.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20년 제2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0. 5. 21.(목)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위원 : 11명

- 강영욱 위원, 권순범 위원, 김호평 위원, 박지환 위원,
신희철 위원, 이경순 위원, 이정훈 위원, 인호 위원,
장병탁 위원, 조영임 위원,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 배석 :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계데이터협력단장,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장, 디지털재단 기획실장,
사업추진업체, 안전관련 팀장·주무관 등 22명

◆ 진행순서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방안 자문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착수보고
- 디지털 격차해소 추진과제 제안 및 토론
-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사업 추진경과 공유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조기 구축 추진
 -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 추진

◆ 상정안건

- 토론(자문) 2건
 -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방안
 - ▶ 디지털 격차해소 추진과제 제안 및 토론

◆ 회의결과 : 붙임 참조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진행순서, 참석위원 등 소개

〈위원장〉

참석위원 환영 인사말씀, 회의록 서명위원(박지환, 신희철 위원) 선출

〈위원장〉

안전 2건 및 주요사업 추진경과를 일괄 보고 후 토론 진행토록 하겠음.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

〈사업추진업체 PM〉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착수보고

〈스마트도시담당관〉

디지털 격차해소 추진과제 보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조기 구축 추진사항 보고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 추진사항 보고

〈위원장〉

안건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디지털 격차해소 추진과제’ 2건으로 위원님들의 질문, 제안 및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분야 자체가 넓기 때문에 범위 설정이 어려우므로 기본계획의 전략적 방향성, 협의대상, 시기, 방법과 비전 달성을 위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협의 대상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듯함.

〈○○○ 위원〉

코로나 이후 AC(After Corona) BC(Before Corona)로 나뉘었으며, 이제는 ‘없으면 안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스마트도시의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게 좋을 것임.

언컨택트(Uncontact) 시대, 비대면 시대를 접하게 되면서 디지털이 확산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러 분야별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비대면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함. 초고속 인터넷도 깔리고 있는 환경이지만 교육 콘텐츠가 너무 부족함. 디지털 디바이드(소외자) 콘텐츠를 만들고, 노인이나 외로운 분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 두 번째는 비대면 헬스케어 고려해야 함. 비대면 시대에 자택에 갇혀있다 보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므로 심리상담치료, 우울증치료 원격의료 서비스와 홈 운동 서비스 등 말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임.

비대면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 법규, 하나로 담아 액세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세 번째는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고려해야 함. 카드사, 마트, 제약학회 등이 디지털머니(지역화폐, 디지털바우처, 디지털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두가지 장점이 있음. 하나는 개인마다 다르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를 탑재하면 좀더 스마트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임. 또 하나의 특징은 데이터를 남긴다는 것,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되면 다음에 정책 수립시 스마트한 정책이 될 것이며 효과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

- 네 번째는 비대면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함.

코로나 이후 온라인시민공청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했는데, 이후에 의사 결정하는 단계까지 실천을 하게 되면 좋을 것임.

- 다섯 번째는 비대면 재택근무를 고려해야 함.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되겠지만, 영세한 회사들은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재택근무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아동돌봄 지원도 함께 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꼼꼼하게 지원해주면 좋을 것임.

- 이외에 응급·방역, 디지털 잡 크리에이션 등도 신경쓸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공허했던 부분들을 코로나 이후에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코로나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좀 더 와닿는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것임.

〈○○○ 위원〉

최근에 언택트(Untact) 시대라는 용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언택트 시대의 다른 말은 디지털 커넥티드(Digital Connected)라고 함.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하지 않지만, 디지털 상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임. 디지털 커넥티드 세상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디지털에 연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비대면 시대 이전에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두각을 나타내었음.

- 기존에 하던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S-Net을 구축하는 등 서울시 안에서 정보화부서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으며 그 이후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므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을 발굴해야 할 것임.

- 또 하나는 정보화 관련 협의대상 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도 고려해야 함.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그런 정책을 검토해야 함. 그런 관점에서 노인분이나 고령자, 은퇴자들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여 정보화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임.
- 코로나 이후에는, 기존 정책하고는 좀 더 다른 관점의 스마트시티 정책들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위원〉

- 언택트(Untact) 관련하여 페이퍼리스와 화상회의를 고려하면 좋을 것임.
- 서울시에서 시민을 키워드로 언급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이 의견을 내면 그 개인으로부터 적당한 무엇인가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함.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낸다는 것은 좋은데, 균형있게 반영해야 함. 정책적으로 집단지성이 되는 대표도 올텐데, 시민들 의견을 너무 존중하다 보면 정책 수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의사결정 체계가 있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스마트도시의 생태계는 무엇일까, 서울시 생태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정의해야 연속적으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의 방향이 나올 것임. 생태계를 예로 들면 IT에서는 인프라가 될 수 있으며, 정보화 총괄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도 있어야 하고 서비스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있지만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정제하고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포함해서 구체화한 후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정책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AI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3개가 균형이 잡혀야 스마트하다고 표현함.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스마트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위원〉

- 서울시 스마트도시 추진방향이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기준인 인프라 구축 효과성 보다는 시민체감 기술공감형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것으로, 그동안 시민의 서울시 스마트시티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임. 정보격차해소 추진과제와 스마트도시 구성요소에 있는 다양한 레이어 등 충분히 고민을 하였겠지만, 시민들에게 와닿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 것임.
-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정책적으로 보면 이 모든 분야를 조직내에서 모두 개발해서 공표할 수는 없으므로, 시민들이나 스타트업이나 대학, 다양한 기관들 내에서 시민들의 수요나 막연한 니즈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나와야 함.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 등과 연관 있는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데이터 네트워크, 하드웨어 인프라 같은 환경이 충분히 구축된 것 같은데, 컨설팅하면서 전문가 의견도 수합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합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전문적인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민 체감상 와닿는 느낌이 결정될 것임.
- 정책비전체계에서 스마트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 행정 이와 같이 3개 정책과제 10개 사업 레이어를 가지고 진행하였는데 실제로 해야할 과제와 사업인지,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더 수정을 해야 할 것인지 궁금함. 코로나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작년 말이나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심어져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기본방향을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임
- 정책추진범위를 보면 현재 하던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고, 시민들에게 코로나 이전에 비해 취약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생겼을 것임.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보완이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컨설팅 과정에서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 위원〉

코로나 이후 언택트(Untact)가 이슈가 되는 등 여건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첫 번째는 방역과 안전 분야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서울 지하철 등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움직이기는 움직여야 하는데 방역을 하지 않고 움직일 수는 없다, 어디까지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를 통하여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ICT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추적하는 등 이슈가 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의 범위가 코로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 측면에서 공간을 재정비하고 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서울시에서 스마트도시를 지금까지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블록별로 나눠서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두 번째 부분은 보안(security)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차에 해킹이 발생하면 서울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음. 보안(security)은 포스트코로나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며,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계획 수립시 잘 진행되는가에 대한 검증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하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수립시 전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이 추가 검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

〈○○○ 위원〉

- 전체적인 보고 내용하고 협의 안건을 볼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정하고 코로나 이후까지 고려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협의안건이 정해진 것 같고 전체적인 방향성 등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과거의 정보화기획단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조직의 이름이 바뀌었으며, 정보화는 프로세스에 불과하므로 스마트도시의 모든 정책분야가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해진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임. 서울시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결정할 것인가는 서울시 몫이라고 생각하며, 분야별 범위와 해결방안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임.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전체 과업으로 완성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울 스마트도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성과품과 결과물이 필요함.

목표 자체를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하고 목표설정을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해줘야 부서에서의 업무가 수월할 것이며, 사업 추진 업체에게도 명확하게 과업을 명시해야 할 것임.

〈○○○ 위원〉

법률 및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분야에 시민 의견 반영이 필요함.

-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 기반 스마트서울 구현에 필요한 도시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활용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 공공데이터를 넘어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함.
- 시민참여 기반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시민니즈 기반으로 데이터 정책을 기획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구체적 아이디어를 수렴하면 좋을 것임.

- 확진자 동선 공개 등 방역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예컨대 2주후 동선 데이터를 일괄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데이터 공개 정책의 대표적 사례임.

〈위원장〉

- 스마트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과 범위 정립이 필요하며,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를 리드하기 위하여 R&R, 업무범위 등을 정리한 표준이 필요함. 지자체, 중앙정부와의 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서울시의 ‘스마트도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소프트 측면인 부분도 있고 서울은 무엇이나로 봤을 때 디지털정책으로 넣을 것인지 철학적인 개념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과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며, 전략총괄을 거버넌스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을 제안함. 각 분과별로 했을 때 분과단위를 정하고, 분과별 간사는 서울시에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며, 분과장은 분과 안에서 선정하면 좋을 것임.
- 스마트도시 플랫폼에 대해서는 데이터 인프라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기본계획 전략적 방향성, 협의대상, 시기, 정보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문보다 참여하셔서 정책을 만든다던지 방향성을 크게 제시를 해주면 과업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임.
- 7월 3주차 정도나 그전에 위원회 의견을 들어 대상을 정하고 관련하여 실무자 회의가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해 대면회의가 힘들다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할 것임.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마스터플랜이 잘 만들어져야 하므로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임.
- 협의를 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범위와 역할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스마트도시정책관〉

- 서울시가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7회 연속 1위를 하는 성과가 있었고, 그런 기반들이 쌓이면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는 역할을 했음. 3월 이후로 시장님이 온라인상으로 글로벌한 시장들과 만나서 서울의 경험을 논의하고 외국의 시장들이 서울의 경험을 따라주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음.
- 서울이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표준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 결정이나 경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향성이 있을 수 있음. 서울이 스마트시티의 선도적인 도시로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먼저 첫발자국을 디더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표준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위원님들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정답이라고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절차적인 측면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검증하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임.
- 시민들의 생활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효과적인 협업플랫폼과 내실있는 거버넌스를 통하여 법규나 제도화 이런 정책분야들이 서울시 단위를 떠나서 글로벌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나아가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용역직원, 위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과의 협의내용,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개개인의 의사를 단순한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품질을 높이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할 것임.
- 많은 고민 끝에 추진하게 된 온라인 공청회가 성공하면서 기본만 있으면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음
시와 용역업체에서는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의견들을 충실하게 모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면서 내용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위원장〉

- 스마트도시를 리드하고 글로벌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기본 계획에 잘 담겨야 할 것임.
- 디지털 격차해소, S-Net 추진 등 스마트시티의 동력들이 되는 것으로,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추진업체의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임.

〈위원장〉

- 이상으로 제3차 정기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